

전주지역 3·1운동 발상지 알리는 버스 승강장

전주시, 신흥중·고교 앞 100주년 기념 '테마승강장' 설치 지역예술가 조형물 만들고 역사기록 사진·태극기 등 부착

전주 지역 3·1운동의 중심지였던 신흥중·고등학교 앞 버스 승강장이 3·1운동 기념 승강장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국비 등 총 6500만원을 들여 신흥중·고교 앞 시내버스 승강장을 3·1운동 기념 승강장으로 조성한다.

1900년 한강 이남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교육시설인 신흥중·고교는 1919년 3·1운동 당시 학생들이 학교 지하실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을 만들어 독립만세운동을 펼치는 등 전주 3·1운동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 학교 앞 승강장을 3·1운동을 테마로 한 승강장으로 바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예술작가들이 참여하며 3·1운동의 역사가 담긴 조형물이 설치되고 역사기록 사진과 태극기 등이 부착된다.

또 '1919년 3·1운동 당시 신흥학교 학생들이 일제 식민지배에 항거해 학생운동을

일으킨 곳'이라는 안내방송도 송출된다.

시는 공기청정기와 미니 도서관, 음수대, 탄소발열의자, 에어 커튼, 교통카드 잔액 표시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도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승강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은 기능성뿐만 아니라 도시의 정신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버스 승강장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는 승강장으로 꾸미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신흥중·고등학교 앞 버스 승강장이 3·1운동 기념 승강장으로 탈바꿈된다. 위에서부터 현재 승강장 주변 모습과 앞으로 조성될 버스승강장의 주간·야간 전경 예상도. <전주시 제공>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리는 고부 봉기 재현행사

15일 이평면 일원서 6개 면민 참여...국악단 공연 등 체험행사도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을 맞아 고부 봉기 재현행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5일 이평면일원에서 (주)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이사장 박종신)가 주관하고, 이평·고부·덕천·영원·소성·정우면 등 6개 면민이 참여해 고부 봉기를 재현한다.

올해로 125주년을 맞는다.

고부 봉기는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을 견디다 못한 동학 교도와 농민들이 1894년 2월 15일에 전봉준 장군과 함께 고부 관아를 점령한 사건이다.

말목 장터는 농민군의 첫 집결지이며 전봉준 장군은 이 곳에서 격문을 발표하고 관아로 향했다.

정읍시립국악단의 공연과 사발통문 작성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원년이자, 국가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로 다양한 선양사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알리고 "2019-2020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건립 사업 '순항'

13만㎡ 부지 총 1047억원 투입 누룩 체험관 등 신축

'전통장류의 고장'인 순창군이 발효산업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발효테마파크 건립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11일 순창군에 따르면 발효테마파크 건립 공사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4월 시작돼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다.

순창읍 백산리 일대 13만㎡ 부지에 들어설 발효테마파크(조감도)에는 민자를 포함해 총 1047억원이 투입된다.

발효테마파크에는 발효테라피센터, 세계 발효 마을 체험농장, 다년생 식물원, 추억의 식품 거리, 누룩 체험관, 월드 푸드

사이언스관, 발효 미생물전시관 등이 들어선다.

시설이 완공되면 발효산업과 관광을 융합한 전통발효문화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군은 전망한다.

특히 민속마을과 인접해 전통장류 산업과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발효테마파크 인근에 장내유용 미생물은행도 추진한다.

장내유용 미생물은행은 가족 단위로 건강을 대변을 보며,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게 하는 시스템이다.



김재진 순창군 미생물산업 사업소장은 "발효테마파크는 순창의 미래먹거리인 발효산업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발효를 주제로 한 체험 관광지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익산시,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참가자 모집

익산시는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위한 참가부부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대상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익산시 거주 법적부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10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결혼식은 오는 3월 9일 신광교회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된다.

결혼식에 소요되는 드레스, 턱시도, 메이크업, 웨딩사진 및 앨범제작, 식대 등

모든 예식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이번 합동결혼식에는 익산시 주요관공저와 유적지를 가족과 함께 둘러보는 시티투어와 신혼여행을 위한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의 숙박이 제공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동거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려주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이루기 위한 이번 합동결혼식에 많은 분들의 후원이 이어져 풍성한 결혼식이 될 것 같다"며 "많은 동거부부들이 신청해 행복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정경 기자 yjj@kwangju.co.kr

남원시, 78억원 투입 노인일자리 3000개 만든다

남원시가 올해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인일자리 3000여개 만들기에 나선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전년과 비교해 17억원이 증액된 78억4000만원을 확보해 노인일자리 2830개를 창출한다.

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44개 사업을 이달부터 10월까지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270명) ▲마을가꾸기와 스킨케어 교통지원, 노인자치경찰대 등 공익형 일자리(2300명) ▲면사광국수와 시니어건강원, 실버카페 등을 운영·참여하는 수익형일자리(140명) 등 다양각색 사업

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별로 발대식을 갖고 사업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12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니어클럽 사업 참여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발대식이 열린다. 이후 13일 대한노인회, 14일 노인복지관 등에서 사업별로 발대식을 갖는다.

남원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소득도 보전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제정 식량주권 확보

고창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종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고창군은 지역 토종농산물 우선구매로 한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외래종자 수입과 재배를 자제하고,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제정이다.

또 수립될 '고창군 토종농산물 종합계획'에는 토종농산물 조사·관리·재배 등

의 현황,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계획, 판매·소비촉진 방안 등도 포함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례 공포로 농산자원의 다양성과 식품안전성을 확보해 지역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장점을 살려 고창군 토종 농산물로 친환경 건강한 먹거리 이미지를 구축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군산시, 시의 역동적 이미지 창출 브랜드 슬로건 공모

군산시는 잠재한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새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한다.

브랜드 슬로건은 군산의 정체성과 함께 역동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대상 300만원,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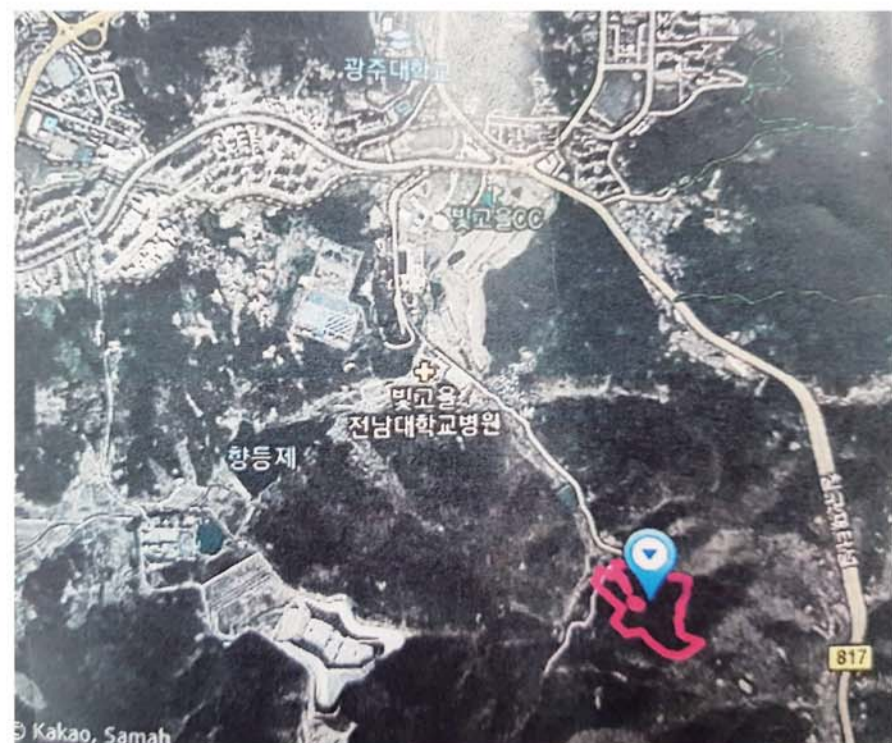
브랜드 이미지(BI)가 포함된 슬로건이 대상으로 선정되면 별도 심사를 거쳐 디자인 제작 비용 절감에 따른 시상금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응모 희망자는 이메일(kitchen9@korea.kr)로 슬로건을 보내거나 군산시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